소나기 닥칠 지라도 뛰지 말라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비록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내밀 때에도 말하기 어려운 무게(三千威儀)와 하나라도 버리기 어려운 사랑스런 손길(八萬細行)이 깃들어 있어야 수행자라고 여러 선지식은 예서부터 이제까지 말씀하셨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꽤나 중요해서 일찌감치 부처님 때부터 쓰였던 훈계용 가르침이자 청규(淸規)였다.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들어 가슴 저미게 했던 지혜제일 제자 사리뿟따를 부처님께 이끈 것은 부처님의 장광설(長廣舌)이었을까? 뒷날을 위해 윤회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신 이것이 뭐다냐(이뭣꼬)이었을까? 그것은 아주 뒤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낱낱이 쪼개서 한 꼬투리의 의심덩어리도 생겨나지 않게 제대로 보게(vipassana)하는 슬기 가르침, 말씀(話頭)이었을까? 재미있게도 아니다. 오로지 잡티 없이 고요한 걸음걸이였다.

아침 일찍 '기운 옷(袈裟)'를 걸치고 '밥빌음(托鉢)'하러 가는 "앗싸지 비구가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바라보거나 돌아보거나 굽히거나 펴거나 눈을 아래로 내려 보며 단정한 위의를 갖춘 모습이었다"고 우빨리는 율장(律藏)에서 전한다.

앗싸지는 자신에게 밀어닥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왕성을 나가버린 싯다르타를 다시 왕궁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히 파견되었다가 오히려 붙잡힌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깨달음도 빨리 얻은 사람이 아니다. 알다시피 가장 먼저 깨친 이는 콘단야(교진여)다. 그런데도 그의 고요한 걸음걸이에 삼천위의 팔만세행이 깃들어 있었기에 사리뿟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사리뿟따 佛門 이끈 건 앗싸지의 걸음
삼천위의·팔만세행 깃든 몸가짐 상기를

그의 고요한 걸음걸이는 깨달음을 얻은 이의 상징으로 보이는 무엇이 있었다. 그 모습을 뒷날 스승들은 수행자는 소나기 앞에서도 뛰박질 하지 않음이라고 하였다. 정말 그럴까? 그 뒤에는 또 요즈음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그런 흠뻑 젖은 생쥐 꼴이 되거나 남의 집 처마 끝에서 비 맞고 중얼대는 상황이 될 텐데도 뛰지 말아야 할까? 사실은 그때 수행자인 비구 또는 승려는 뛸 수가 없었다. 여러 까닭이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비구의 옷인 가사가 천 하나를 둘러서 밖으로 맨살이 드러나지 않게 입느라 다리를 크게 벌릴 수가 없게 옷매무새를 만져서 그렇다. 남방 비구승들은 그래서 소피도 앉아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양을 위해 아침마다 탁발을 하는데 그 발우가 크고 무거워서다. 요즘은 바뀌었다지만 처음에는 돌 발우를 썼다고도 한다. 띠처럼 천으로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녀야 안전하게 탁발하고 반찬까지 오른손으로 비벼서 먹기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걸어도 앞을 살피지 못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세 번째는 앗싸지처럼 붓다와 그 제자들이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소나기를 맞더라도 수행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로 품위를 해치면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비단 뛰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발 딛고 사는 지구란 어떤 곳일까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라는 섬에는 주민이 200여 명 남짓인데 사슴이 1000여 마리나 살고 있다. 여기까지 읽으며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풍경이 떠올랐을까? 사슴이 한가롭게 뛰놀며 풀을 뜯는 장면? 주민들이 농사짓는 밭 주변으로 울타리를 세웠으나 사슴이 농작물을 뜯어 먹어 밭은 망가지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니 나무가 온전히 자랄 수가 없다.

도대체 어쩌다 이토록 많은 사슴이 그것도 섬에 살게 된 걸까? 한때 축산업자가 섬으로 10여 마리를 데려온 뒤 방치하면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천적이 없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도 일조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일이 떠오른다. 1880년대 목축을 시작하면서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를 소탕하기 시작해서 1926년에 이르자 옐로스톤 지역에서 늑대무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마음 놓고 가축을 기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늑대가 사라진 자리에 초식동물인 엘크 수가 급증하면서 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를 넘어 새순이며 묘목까지 모조리 먹어 치웠다.

생태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졌다는 걸 인지하면서 늑대를 공원으로 데려왔다. 늑대가 다시 등장했으니 이제 균형 잡힌 생태계가 작동했을까? 옐로스톤 너른 지역에서 엘크는 늑대를 피해 계속 생존할 수 있었고 늑대가 없던 시간 동안 옐로스톤의 생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전남 안마도엔 1000여 사슴 서식
축산업자 방치 후 기하급수 늘어
관계성 무지가 환경 파괴 이끈다

지난 겨울 강변에서 그물이 쳐진 듯 흉물스러운 구조물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말라버린 '가시박'이었을 확률이 높다. 가시박은 고온다습한 여름이면 하루에 30cm 이상 자랄 정도로 왕성한 성장력을 지닌 데다 한 뿌리에서 2만5000여 개 씨앗을 생산하는 식물이다. 게다가 강력한 화학물질을 배출해서 주위 식물의 성장을 막는 타감작용까지 가능한 게 가시박이다. 그러니 빠르게 퍼지면서 주위 식물을 뒤덮고 가시박에 포위된 식물은 결국 고사한다.

그렇다면 이토록 주변 생태계에 폭력적인 가시박은 왜 퍼지게 되었을까? 1980년대 후반, 오이와 호박을 접붙일 때 필요한 대목 작물로 가시박이 도입되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빨리 자라는 등 상품성이 뛰어난 작물을 만드는데 가시박 줄기를 활용했다. 2000년 이후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불어난 강물을 타고 가시박 씨앗이 하천과 습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오늘날 이런 비극이 펼쳐지게 됐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낯선 땅으로 데려올 때는 인간의 크고 작은 욕망이 작동한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결국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고 나면 박멸하느라 또 난리다. 비단 생물뿐만이 아니다.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까지 받던 물질이었다가 이젠 인류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란 무엇인가? 흙인가? 대양인가? 동식물인가? 인간인가?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지구 아닌가? 그런 관계성에 대한 무지가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무한 반복시키며 우리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있다. 모든 고(苦)의 근원이 무지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절절하게 와 닿는 21세기다.

社 說

사지 출토 성보는 예경의 대상

조계종 사찰 소유 토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조계종 중앙종회 사찰매장문화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들은 관련 법 미비로 국가로 성보가 귀속되는 현행법의 현황을 바로잡고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소유권 여부를 심사한 후 소유권이 결정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발견 사실을 90일간 공고한 후 원소유자가 나타나면 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소유권 주장이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소유자가 사찰임이 명백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모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매장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23년에는 탑, 부도, 전각 등 건조물에서 발견된 성보에 대하여 사찰의 당연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건조물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전통사찰 보존지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불상 등 성보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예경의 대상이다. 불교계 역시 사찰 복원 불사 등을 통해 사지 출토 성보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위의 활동이 이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출범 환영한다

동국대 학생 신행연합조직인 '불교학생연합'이 출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안은 6월 12일 동국대 건학위원회 주최 제25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에서 발표됐다.

'불교학생연합'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을 완료한 14개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행연합조직으로 단일 대학에서는 최대 규모의 '학생신행연합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들 학생연합은 오는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불교문화축전'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5개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를, WISE 캠퍼스에는 6개 불교동아리를, LA캠퍼스에도 1개의 불교동아리를 창립시켰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불교동아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동아리 지원 계획을 들어보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동국대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이는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님을 보면 학생들이 합장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소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같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6월 26일 출범하는 불교학생연합이 항구적인 대학생 전법·신행을 이끄는 단체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6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